

한옥마을 '먹거리 난장' 축제 '불허'

전주시 "특산물 장터·각종 사회단체 부스 먹거리 부스 형태로 변질 우려"

전주한옥마을과 남천교 인근 전주천 둔치에 '먹거리 난장' 형식의 문화축제를 추진하려던 전주한옥마을소상공인연합회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연합회는 오는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10일 간 한옥마을 일대와 남천교 인근 전주천 둔치에서 '제1회 전주한옥문화축제'를 열기로 하고 하천 점용 임시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내용을 보면 개·페막식에는 타악 퍼포먼스, 비보이(B-boy), 가수 공연, 전국 품바 경연대회,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주요 행사로 제시하고 있다.

또 행사 기간 전주천 둔치에 각종 먹거리 부스와 전북 지역 시·군 특산물 장터, 문화 예술인들의 공방 부스, 각종 사회단체 부스 등 160여개의 부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시 먹거리 난장은 행사계획 단계

에서부터 배제하고 있고, 문화공연 위주의 행사가 아닌 먹거리 난장 운영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특산물 장터와 각종 사회단체의 부스가 먹거리 부스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 행사에 타지역의 행사대행업체가 연관되면서 부스 1개당 수백만원에 분양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피해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연합회에서 축제를 진행하려던 장소인 남천교 인근 전주천 둔치에는 지난해 말까 물역새와 수크령 등이 다양한 조경들이 심어져 있다.

이때문에 이곳에서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하천법에 따라 취사 행위가 금지돼 있어 조리 기구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민간연합회장 이취임식

전북 어린이집 민간연합회장, 이계순 전임 전북 어린이집 민간연합회장회장 및 전북 어린이집 민간연합회 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연합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에 지난 28일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는 연합회 측에 하천 점용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은 정제성과 어울리지 않는 공연 행사는 물론 먹거리 난장 운영 시에는 원천적

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라며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품격있는 행사만을 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전문문화행사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학폭 기재 거부' 김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검찰 "교육부 감사 방해·교육현장에 혼란 야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감사의 형식만 띠면 정당성 여부에 상

관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감사를 나올 당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3대 반칙행위 집중단속... 609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반칙과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이른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3대 반칙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885건을 적발하고 60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각종 선발과징의 비리를 포함한 생활반칙과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반칙,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생활반칙 부분에서는 체용과 안전비리 관련 110건을 단속해 141명을 붙잡았고 주취·생활폭력 관련 80건을 적발해 98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에서는 이동식 음주단속 등 주야 간 단속을 벌여 1194건을 단속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여기에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 등 605건을 적발, 370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3대반칙 모두 서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해지

'노송FM' 시민 방송활동가 모집

7일까지 20명 선착순... 방송시스템 구축·양성교육 실시

전주시가 마을과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참여할 PD와 아나운서 등 시민 방송활동가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전주형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직접 운영 방송프로그램인 공동체라디오 '노송FM'에 참여할 시민 방송활동가 20명을 오는 4월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공동체라디오는 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동체라디오 '노송FM'은 노송동 소재 전주시혁신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 전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라디오 방송제작과 녹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4월부터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이 공동체라디오를 주도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송활동가 양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활동가 양성교육에는 방송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개념설명 △라디오 기획과정 △장비실습 △미니FM 견학 및 진행 실습 △모뎀별 방송해보기 등 총 13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매주 2차례씩 열린다.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향후 센터 내 방송국에서 공동체의 소식을 전달하는 파발마 역할과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동체라디오 '노송FM'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주시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접수기한인 4월 7일까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jscc.or.kr) 또는 전주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0simi.or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체라디오 '노송FM' 사업과 방송활동가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281-93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택시, FIFA U-20 월드컵 홍보대사 된다

전주시 곳곳을 누비는 택시가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택수)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김운식)과 손을 잡고 대회 홍보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에서 운행되는 법인택시 1,530대와 개인택시 2,300여대 등 3830여대 택시는 오는 4월부터 대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U-20월드컵대회 홍보 스티커를 전달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차오르미'와 김택수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연회도 가졌다.

'FIFA U-20 월드컵' 홍보를 위해 제

작된 스티커는 대회 마스코트인 '차오르미'가 주인공이 돼 개막도시 전주를 알리는 대회명의로 제작됐다.

또한,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소속 개인택시들도 FIFA U-20 월드컵 대회와 무주WTP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오는 4월부터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전주지역 곳곳을 매일 운행하는 많은 택시차량이 시민들 속으로 손쉽게 다가와 대회를 홍보하고, 사전 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봉근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장은 "대회 홍보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김택수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과 김운식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대회 범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숲 체험 교실 11월까지 무료 운영

전주시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전주시는 도심 숲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체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숲 체험 교실'을 전주시 유치원과 학교, 가족 등 단체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올해 숲 체험 교실에서는 숲 생태에

대한 교사의 눈높이 해설과 숲속 자연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으며, 건강 숲 체험과 생태 숲 체험, 생태습지체험, 야생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강 숲 체험'은 건지산 편백림과 모악산 탐방로에서 진행된다. 건강 숲 체험에는 △딱따구리의 흔적

을 찾아라 △탄소를 먹는 나는 누굴까? △도토리가 들려주는 노래 △걷는 어려움보다 얻는 즐거움이 많다 등 등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생태 숲 체험의 경우 완산칠봉 삼나무·편백림과 학산, 황방산, 모악산, 건지산 등에서 진행되며, 생태습지체험은 완산칠봉 생태습지, 건지산 오송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펼쳐진다. 야생화체험은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